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김윤경 · 이선정 · 신호식*

광주 정광중학교 교사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A Study of Family Strengths, Self-esteems, Adjustments to School Life Perceived by Adolescent

Yun-Gyeong Kim · Seon-Jeong Lee · Hyo-Shick Shin*

Gwangju Jeonggwang Middle School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Collage of Education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500-757, Korea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se the difference of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lif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variables, familial variables, family strengths, and self esteems, and to examine effective variables influencing on adolescent's adjustments to school life. The subjects were 434 adolescents from Gwangju City. Datas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PC 14.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family strengths and self esteems scores perceived by adolescent were higher than median an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was middle range.
2. The adolescents' family strength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order of a birth, father's education level, a level of life and intimacy with parents. The self esteem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father's education level, mother's education level, a level of life and intimacy with parents. And the adjustments to school life according to order of a birth, mother's education level, a level of life, intimacy with parents, family strengths and self esteems.
3. The adolescents' adjustments to school life were influenced by family strengths, self esteems, and sex. And the adolescents' adjustments were explained about 38% by these variables.

I. 서론

학교생활은 청소년에게 있어 가정생활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인으로서의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부적응을 할 경우 그에 따른 학습된 행동양상이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생활의 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기도 하다.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이기주의 팽배, 빈부격차로 인한 열등감,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의 영향으로 부적응아들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장단기 무단결석, 도벽 및 가출, 정서불안으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행동, 낮은 학업 성취, 또래집단의 부적응 등으로 나타나(이범재, 1991) 학교생활적응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의 부적응이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청소년기는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직업을 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결혼하는 연령도 늦어지고 있다. 신체적, 생리적으로는 이미 성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성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청소년기의 어려움이기도 하다. 또한 가정이 구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 교육 역시 진인 교육보다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하여 과중한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본래 자아를 발견하고 바르게 정립해 갈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희순, 1998).

청소년의 부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손민경, 2005; 양순미, 유영주, 2003; 이경리, 1998; 전종실, 1999; 조은정, 2005), 자아존중감, 문제대처수

준 등의 개인적 환경요인과 부모와의 관계, 폭력, 양육태도, 의사소통 등의 가족적 환경요인들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위해서는 문제행위 자체만을 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이정숙, 2006). 즉, 학교생활적응의 정도는 가정에서부터 학습되어온 행동이나 성향의 결과라 말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교과나 생활지도, 사회적인 문화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된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적응을 위하여 자기를 이해하고 가정, 학교 나아가 사회에서는 이들이 학교생활을 잘 적응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족 내에서 생활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있어서도 이들이 속해 있는 가족관계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건강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가족의 특성과 이와 관련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족 건강성(family strength)은 가족의 건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어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자각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어은주, 1996). 즉 인간은 가족의 정서적, 관계적 기능을 통하여 안정감과 진정한 전인적 인간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존재이며 인간의 사회성, 공동체성은 가족생활을 통하여 길러진다는 것이다(유영주, 2004). 가족의 건강성은 자녀의 심리, 발달, 학업성취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학교생활 적응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양순미, 유영주, 2003; 윤세은, 2000) 가족원간에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고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가족환경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발달과 자아실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서 자아존중감은 감정이나 행동, 성취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박영애, 1995).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높은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높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며 행동이 위축되어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에 빠져들기 쉽다(이혜숙, 1999).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강민정, 1999; 이지형, 2006).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어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이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건강한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는 어떠한가?
4.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 2, 3학년 남,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6월 11일부터 6월17일까지 7일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2007년 6월 22일부터 6월28일까지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 2, 3학년 남, 여학생 500명에게 배부되어 43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48.8%, 여학생이 51.2%이고, 2학년이 44.2%, 3학년이 55.8%이었다. 종교는 없는 학생이 51.8%, 기독교 26.7%, 천주교 7.1%, 불교 12.4%, 기타가 0.9%로 나타났다. 학생 자신이 인식하는 주관적 생활수준을 살펴보면 상 5.8%, 중상 29.5%, 중 56.5%, 중하 7.6%, 하 0.7%로 나타나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는 자신이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강했다. 출생순위위는 장자 51.2%, 중간 14.5%, 막내 33.4%, 외동 0.9%로 나타났으며, 부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6.0%, 고등학교 졸업 50.9%, 대학교 졸업 36.9%, 대학원 이상 3.7%로 나타났다, 모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4.1%, 고등학교 졸업 71.4%, 대학교 졸업 19.8%, 대학원 이상 2.1%로 나타났다. 부 직업은 회사원 29.5%, 공무원 10.1%, 자영업 21.4%, 전문직 3.5%, 생산 및 기술직 20.0%, 판매 및 서비스직 5.8%, 단순노무 3.2%,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1.4%, 무직 0.9%로 나타났으며, 모 직업은 회사원 14.1%, 공무원 3.0%, 자영업 20.7%, 전문직 4.6%, 생산 및 기술직 9.4%, 판매 및 서비스직 7.6%, 단순 노무직1.6%,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0.2%, 가사·주부 35.5%로 나타났다.

2. 조사 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학년, 종교, 출생순위, 부모학력, 생활수준, 모직업유무에 관한 문항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가족변인

가족변인은 가족형태와 부모자녀 사이의 친밀도를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이란 가족원간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가족원의 발전 및 가족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발전

적으로 생활하는 특성을 말한다. 유영주(2004)의 가족건강성 척도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과 목표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등 9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68문항으로 그 중 각 하위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9문항을 제외한 59문항($\alpha=.97$)을 본 연구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한다.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하여 10문항($\alpha=.83$)으로 구성하였고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5)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인지적, 정적, 도덕적 발달을 위한 학교 학습의 관점과 상황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학교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 여건을 학습자 자신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습자가 학교의 모든 여건을 바르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윤희(1994)가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토대로 26문항($\alpha=.83$)을 구성하였다. 응답 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및 관련변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기위해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인 경향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은 경제적 안정, 감사와 애정,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문제해결능력, 역할 충실,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과 목표 공유, 사회와의 유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와의 유대(2.71)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간값보다 높았다. 즉 청소년들은 다른 가족건강성 요인들보다 이웃 및 지역사회주민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1> 청소년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일반적인 경향

변 인		M	SD
가족 건강성	가족원에 대한 존중	3.32	.68
	유대의식	3.31	.70
	감사와 애정	3.43	.76
	긍정적인 의사소통	3.08	.79
	가치관, 목표 공유	3.02	.62
	역할충실	3.12	.68
	문제해결능력	3.15	.64
	경제적 안정	3.52	.74
	사회와의 유대	2.71	.63
	전체	3.26	.59
자아존중감		3.25	.66
학교생활적응		3.02	.4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각각 3.25와 3.02로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정과 학교에서 대체로 바람직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학년, 출생순위, 부 학력, 생활수준,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년의 경우 2학년이 3학년보다 가족 건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고등학교 선택의 문제와 학업의 부담감, 사춘기의 영향 등 가족과의 갈등이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출생순위에 있어서는 장자나 막내에 비하여 중간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자인 경우 부모로부터 맡아이로의 기대와 관심을 갖게 되며, 막내인 경우는 보호와 귀여움을 차지하는 반면 중간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에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편애하지 않는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쉬운 중간 아이에게 더욱 사랑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부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자녀의 가족건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의 학력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며 이에 따른 가족의 문화나 분위기, 경제적 여유가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집단의 가족건강성이 높았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 변인에 따른 자아존

<표 2>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족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변인	구분	N	가족건강성			
			M(SD)	D	F/t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남	212	3.29(.60)		1.12
		여	222	3.23(.58)		
	학년	2학년	192	3.32(.58)		2.05*
		3학년	242	3.20(.60)		
	종교	있음	205	3.27(.62)		-.33
		없음	225	3.25(.57)		
	출생순위	장자	226	3.32(.61)	a	4.18*
		중간	63	3.09(.57)	b	
		막내	145	3.23(.57)	ab	
	부학력	중졸이하	26	3.08(.63)	b	7.57***
		고졸	221	3.17(.60)	b	
		대졸이상	176	3.38(.57)	a	
모학력	중졸이하	18	2.96(.92)		2.68	
	고졸	310	3.24(.57)			
	대졸이상	95	3.31(.59)			
생활수준	상	153	3.51(.52)	a	29.27***	
	중	245	3.16(.56)	b		
	하	36	2.83(.71)	c		
모직업	있음	280	3.23(.60)		-1.43	
	없음	154	3.31(.59)			
가족형태	핵가족	406	3.19(.54)		2.51	
	확대가족	28	3.38(.75)			
부모와 친밀도	좋음	314	3.44(.51)	a	93.68***	
	보통	99	2.91(.40)	b		
	좋지않음	21	2.18(.64)	c		

* p< .05, *** p< .001

중감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성별, 부학력, 모학력, 생활수준,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잔재하는 남아선호 사상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결과라 생각되므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가치와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남·여학생 모두가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도와 관심이 요구된다.

부 학력에 따라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다. 이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족 문화 수준이 높아 자아존중감 또한 높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모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어머니의 학력이 낮으면 양육방식이 미흡하거나 양육 수준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생활 수준에 따른 가정 문화의 수준의 영향이라 볼 수 있으며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이가 부모와의 친밀도가 좋다고 인지하는 것이 스스로 자존심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하여 자아존중감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출생 순위, 모 학력,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보다 많은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출생 순위의 경우 장자와 막내 집단이 중간 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출생 순위가 중간인 경우 적극적이고 사회성이 높아 학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인	구분	N	자아존중감			
			M(SD)	D	F/t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남	212	3.31(.67)		1.98*
		여	222	3.19(.65)		
	학년	2학년	192	3.32(.63)		1.90
		3학년	242	3.20(.68)		
	종교	있음	205	3.28(.63)		-.74
		없음	225	3.23(.69)		
	출생순위	장자	226	3.28(.68)		.60
		중간	63	3.21(.63)		
		막내	145	3.21(.65)		
	부학력	중졸이하	26	3.00(.68)	b	4.30*
		고졸	221	3.19(.67)	ab	
		대졸이상	176	3.34(.64)	a	
모학력	중졸이하	18	2.86(.91)	b	3.60*	
	고졸	310	3.24(.63)	a		
	대졸이상	95	3.31(.68)	a		
생활수준	상	153	3.38(.61)	a	8.19***	
	중	245	3.21(.67)	b		
	하	36	2.93(.69)	b		
모직업	있음	280	3.25(.66)		-.02	
	없음	154	3.25(.67)			
가족형태	핵가족	405	3.18(.71)		.51	
	확대가족	28	3.30(.46)			
가족변인	부모와친밀도	좋음	314	3.35(.62)	a	13.52***
		보통	99	3.03(.64)	b	
		좋지않음	21	2.85(.94)	b	

* p< .05 *** p< .001

교생활에 잘 적응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 점수와 같은 경향이다. 따라서 중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모 학력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이 가장 낮았고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은 높았다. 생활수준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인 풍족함 뿐 아니라 문화적인 수준이 높으며 이

러한 환경속의 자녀들의 성향은 대체로 원만하고 자존감이 높다.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도 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이라 해석된다.

가족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서는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른 학교생활의 적응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 가족건강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가족건강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족건강성이 높은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았다. 가족건강성이 높은 경우 가족 단위에서 형성된 적응력이 학교라는 집단에서도 연장되어 적용되므로 가족 건강성이 높은 경우 학교생활적응도 비례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학교생활적응이 높았다. 즉,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선생님이나 교우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의 규칙을 잘 준수하는 바람직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r=.566, p<.001$), 자아존중감($r=.432, p<.001$), 부모와의 친밀성($r=.335, p<.001$), 생활수준($r=.254, p<.05$), 성별($r=-.133, p<.05$), 출생순위($r=.098, p<.05$)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심으로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계수와 DW(Durbin Watson)계수를 조사하였다. VIF는 1점 대에 머물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계수도 1.89로

<표 4>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변인	구분	학교생활적응					
		N	M	SD	D	F/t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남	212	3.08	.46		2.80
		여	222	2.96	.47		**
	학년	2학년	192	3.07	.49		1.87
		3학년	242	2.98	.45		
	종교유무	있음	205	3.03	.49		-.61
		없음	225	3.01	.45		
	출생순위	장자	226	3.06	.47	a	3.75*
		중간	63	2.88	.49	b	
		막내	145	3.01	.45	a	
	부 학력	중졸이하	26	3.01	.50		2.31
		고졸	221	2.97	.46		
		대졸이상	176	3.07	.48		
모 학력	중졸이하	18	2.72	.47	b	4.10*	
	고졸	310	3.04	.47	a		
	대졸이상	95	2.99	.47	a		
생활수준	상	153	3.15	.49	a	11.83***	
	중	245	2.97	.44	b		
	하	36	2.80	.43	c		
모 직업	있음	280	3.01	.45		-.53	
	없음	154	3.03	.50			
가족 변인	가족형태	핵가족	406	3.00	.44		.28
		확대가족	30	3.07	.50		
	부모와의 친밀도	좋음	314	3.10	.46	a	19.11**
보통	99	2.85	.43	b			
좋지않음	21	2.64	.45	c			
가족건강성	높은집단	127	3.32	.46	a	78.38***	
	중간집단	181	3.03	.36	b		
	낮은집단	126	2.69	.40	c		
자아존중감	높은집단	140	3.24	.49	a	37.11***	
	중간집단	158	3.02	.42	b		
	낮은집단	136	2.79	.39	c		

* $p<.05$, ** $p<.01$, *** $p<.001$

높은집단 $\geq M+1/2SD$, $M-1/2SD <$ 중간집단 $< M+1/2SD$

낮은집단 $\leq M-1/2SD$

2에 가까워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가족건강성($\beta=.480, p<.001$), 자아존중감($\beta=.245, p<.001$), 성별($\beta=-.082, p<.05$)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교생활적응을 38% 설명해주고 있다. 즉

청소년이 인식한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076	-.082*
	출생순위	.024	.026
	생활수준	.015	.023
가족변인	부모와 친밀도	-.021	-.038
가족건강성		.379	.480***
자아존중감		.174	.245***
F		44.38***	
R ²		.38	

dummy variables

: 성별(여=1,남=0), 출생순위(장자 외=0, 장자=1)

* p<.05, ***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의 원만한 학교생활에 자아존중감과 가족건강성의 중요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남녀 중학생 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요약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인식한 가족건강성(평균3.26), 자아존중감(평균3.25), 학교생활적응(평균3.02)은 중간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은 학년, 출생 순위, 부학력, 생활수준,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2학년 집단, 장자와 막내 집단, 대학교 이상의 부학력 집단,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성별, 부학력, 모학력, 생활수준,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

다. 즉, 남학생 집단, 부모의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집단, 부모와의 친밀도가 높은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성별, 출생순위, 모학력,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 중간보다 장자와 막내집단, 고졸 이상의 모학력 집단,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교생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변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와의 친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모자녀 관계가 좋은 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의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가족건강성($\beta=.480$), 자아존중감($\beta=.245$), 성별($\beta=.082$)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남학생집단이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의 총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족건강성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차적 사회집단인 가족생활에서 습득된 적응 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낮은 학생에 비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존중감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학생 모두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여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각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회와 문화가 급격히 발전하고 핵가족화, 개인주의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 우려했던 바와 달

리 청소년이 인식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은 중간값 보다 높았고 학교생활적응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 부모와의 친밀도가 좋은 집단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이 모두 높게 나타나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 환경 모두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족 변인은 부 학력, 생활수준, 부모와의 친밀도로 나타났다. 이는 부 학력이 높은 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일반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른 생활수준도 높게 되어 타 집단에 비해 갈등이 적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학력이 낮고 생활수준이 낮으며 부모와의 친밀도가 낮은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와 학교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성별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 가족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 생활적응을 더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족건강성의 경우 일차적 사회집단인 가족생활에서 습득된 적응 능력이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므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가족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아존중감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사고하는 훈련과 함께 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여 중학생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 변인,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등의 변인을 질문지법을 통해 조사하여 양적조사로써의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접법, 관찰법과 같은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조사방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환경 관련 변인을 고려한 보다 통합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민정(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 해결력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민경(2005).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행동문제가 학교생활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 인구학적 변인이 농촌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9(2), 119-151.
- 유윤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 관계: 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리(1998). 청소년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요인 분석: Q 방법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범재(1991).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2006). 학교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형(2006).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숙(199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철(1999). 가출청소년의 부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2005). 부모양육행동과 청소년 문제대처수준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희순(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희순, 김양순(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학회지**, 20(1), 249-262